

## 실격 또 실격... 충격·이변의 대구육상



대회 개막일이던 27일 남자 장대높이뛰기 예선부터 이변이 시작됐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개인 최고기록이 6m인 우승 후보 스티브 후커(호주)가 5m50도 넘지 못하고 예선에서 탈락했다.

전날까지 "타이를 방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큰소리쳤던 후커는 경기 후에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고 말을 뒤집어 관들을 허탈하게 했다.

라이벌 후커가 조기에 떨어지면서 금메달이 유력했던 르노 라발레니(프랑스)가 5m90도 넘지 못하고 동메달에 머문 것도 이번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금메달은 5m90을 넘은 폴란드의 무명 선수 파벨 보이치에호브스키에게 돌아갔다.

여자 10,000m 결과도 예상을 빗나갔다. 비비안 체루이요트(케냐)가 타이틀 수성에 나섰던 팀 동료 리넷 마사이를 3위로 밀어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개막 이틀째인 28일에는 우사인 볼트(25·자메이카)의 부정 출발에 의한 실격을 당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남자 100m에서 가장 유력한 금메달감이었다던 볼트는 흥분한 나머지 스타트 총성이 울리기 전에 스타트블록을 밟고 나갔다가 곧바로 실격당했다. 볼트의 훈련 파트너인 요한 블레이크(22)는 100m에서 첫 메이저대회 우승을 신고하며 최고의 행운을 누렸다. 부정 출발을 하면 단번에 실

최고스타 볼트 100m 부정출발 파문  
 로블레스 110m 허들서 금메달 박탈  
 1만m 5연패 도전 베켈레 중도 기권



29일 오후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10m 허들 결승전에서 중국의 류상과 다이론 로블레스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로블레스는 9번째와 10번째 허들을 넘을 때 바로 옆 레인에 있던 류상의 신체를 접촉 진로를 방해해 실격 처리됐다. /연합뉴스

격 처분을 내린다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강력한 규정 탓에 남자 100m의 드웨인 챔버스, 여자 400m

정상 탈환에 나섰던 크리스틴 오후루구(이상 영국)도 실격의 멍에 걸려들었다. /연합뉴스

남자 10,000m에서 5연패에 도전했던 케네디사 베켈레(38)의 갑작스러운 중도 기권, 그리고 상인 무대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남기지 못했던 팀 후배 이브라힘 제일란(22)의 깜짝 우승도 이번 대회 최대의 이변 사례로 기록할 만하다.

여자 400m 2연패에 도전했던 사나리처즈 로스(26·미국)도 허무하게 무너졌다.

준결승부터 체력 저하를 드러내며 가까스로 결승에 올랐던 리처즈 로스는 결국 결승에서 7위로 끝나는 데 그쳤다. 우승은 보츠와나의 아만틀 몬트소(28)에게 돌아갔고, 보츠와나는 세계선수권대회 사상 첫 금메달을 수확했다.

세계기록(12초87) 보유자 다이론 로블레스(쿠바)와 '황색탄환' 류상(중국), 상승세를 탄 데이비드 올리버(미국) 등 세 명의 영웅이 맞붙은 남자 110m 허들 결승은 이번의 결정판이었다.

명승부가 펼쳐지리라는 예상을 뒤로하고 진로방해와 이로 말미암은 이의제기가 맞물리며 경기 후의 상황이 어지럽게 돌아갔다.

비디오 판독 결과 로블레스와 옆 레인에서 달리던 류상의 신체가 두 번이나 부딪혔고, 결국 국제육상경기연맹은 로블레스가 류상의 진로를 방해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메달의 주인공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로블레스는 금메달을 박탈당했고, 삼판전 속에서 어부지리로 2위를 차지했던 제이슨 리처즈(미국)이 금메달을 이어받아 '최고의 행운아'가 됐다. /연합뉴스



"더 멀리" 30일 오전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3단 멀리뛰기에서 리 안메이가 힘찬 도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자 경보 러시아 올라 3연패 도전

러시아 독무대 예고  
 한국 전염병에 기대

31일 오전 9시에는 여자 경보 20km 경기가 열린다. 대회 3연패를 노리는 러시아의 올라 카니스키나 등 쟁쟁한 '경보의 별'들이 참가한다.

경보 강국 러시아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차세대 경보 스타의 탄생도 예고되고 있다. 우리 대표 선수로는 전영은(23·부천시청)이 출전한다.

여자 경보 최강은 러시아다. 2001년 에드먼턴 대회에서 올림픽이던 이바노바가 1시간27분48초로 우승한 뒤 세계 대회는 러시아의 독무대가 됐다.

여자 경보 20km 기록은 해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2005년 헬싱키 대회에서 이바노바가 1시간25분대로 우승하면서 25분대 벽이 허물어졌다.

세계기록은 올 2월 베라 소코로바가 러시아 소치에서 세운 1시간25분08초다.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도 올림픽이다 이바노바와 올라 카니스키나, 아니스야 키르드얏키나, 베라 소코로바, 타티야나 미니바 등 러시아 선수들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시간30분 이내 기록을 가진 선수가 11명이나 돼 결승선을 끊을 때까지 누가 금메달의 주인공이 될지 안개 속이다.

장창수 경보 담당관은 "남자 경보 20km에서도 그랬듯 다른 대회에 비해 기록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고 순위 싸움이 될 것"이라며 "1시간30분대에서 메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영은(개인 최고기록 1시간34분대, 올해 최고기록 1시간37분대)은 한국기록 경신에 나선다.

/대구=한신협 공동취재단

### 장대높이뛰기 장대 부러져 '아찔'

체코·러시아 선수 불운  
 새 장대로 도전... 실패

장대높이뛰기 경기 도중 장대가 부러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9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장대높이뛰기 결승에서 장대가 부러지는 흔치 않은 광경이 두 차례나 연출됐다.

먼저 불운이 찾아온 건 안 쿠드리카(23·체코)에게였다. 쿠드리카가 바를 넘기 위해 힘껏 도움닫기를 한 뒤 장대를 바닥에 찍고 하늘로 솟구치는 순간, 구부러진 장대가 '뚝'하는 소리와 함께 부러졌다. 쿠드리카는 바닥으로 떨어지며 장대에 옆구리를 긁히는 부상을 입었다.

끝난 줄 알았던 불운은 뒤이어

도전한 드미트리 스타로투브세프(25·러시아)에게도 찾아왔다.

쿠드리카와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다행히 매트 위에 떨어져 다치진 않았지만 드미트리도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공교롭게도 두 선수 모두 5m75 도전 2차 시기에서 장대가 부러졌고, 결국 제대로 기량을 펼치지 못하고 하위권에 머물렀다.

장대높이뛰기에 사용하는 장대는 재질이나 두께, 길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규정상 경기 도중 장대가 부러질 경우 실패로 간주하지 않아 새 장대만 있다면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장대높이뛰기 선수들은 경기마다 10여 개의 여분의 장대를 준비하기 때문에 장대가 부러져서 경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구=한신협공동취재단

**GRAND OPEN**  
 8월 30일

**유·스퀘어 사우나 24시**

위치 :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주차안내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